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떨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 12-13.19)

〈나병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10세기 채색 삽화, 국립도서관, 트리에, 이탈리아

[제1독서] ..... 열왕기 하권 5,14-17

[제2독서] ..... 티모테오 2서 2,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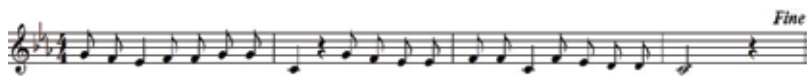
[화답송] ..... 시편 98(97), 1,2-3-4-5  
(© 2)

[복음 환호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주님은당신구원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 네.

[복음] ..... 루카 17,11-19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성가 안내]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 양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156] 한 말씀만 하소서

찬미 노래 불러라. ◎

• 파견성가: [401] 주를 찬미하여라

##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sup>12</sup>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sup>13</sup>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sup>14</sup>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sup>15</sup>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sup>16</sup>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sup>17</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sup>18</sup>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sup>19</sup>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Now it happened that on the way to Jerusalem he was travelling in the borderlands of Samaria and Galilee.

<sup>12</sup> As he entered one of the villages, ten men suffering from a virulent skin-disease came to meet him. They stood some way off

<sup>13</sup> and called to him, ‘Jesus! Master! Take pity on us.’

<sup>14</sup> When he saw them he said,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Now as they were going away they were cleansed.

<sup>15</sup> Finding himself cured, one of them turned back praising God at the top of his voice

<sup>16</sup> and threw himself prostrate at the feet of Jesus and thanked him. The man was a Samaritan.

<sup>17</sup> This led Jesus to say, ‘Were not all ten made clean? The other nine, where are they?’

<sup>18</sup> It seems that no one has come back to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sup>19</sup> And he said to the man, ‘Stand up and go on your way. Your faith has saved you.’

## 묵상

## “진정한 치유는 마음의 회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은총이란 말이 있습니다. 숨 쉬는 순간부터 내 삶의 한순간도 거저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고, ‘살아 있음’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 기적 같은 인생에 감사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분노로 탄식하는 순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보다는 불만에 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던 그들의 치유에 대한 간절한 청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예언자이시니 그분의 치유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한 사람, 그것도 ‘외국인’으로 표현된 이방인만이 돌아와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다시 병들고 쓰러질 육체적 병의 치유가 아니라, 성실하신 하느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회개와 치유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선언은, 당장 나병이 나은 것에 만족하고 돌아간 다른 아홉에게 주어지지 않은 진정한 치유와 자유였습니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도 요르단 강에서 물로 씻기만 했을 뿐, 나병이 나을 것이라 믿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약속된 땅에서 흙을 실어 가져가며 오직 주님께만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을 약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마음의 회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로지 하느님을 향할 때 우리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제 1회 청소년 사목 기금 마련 골프 대회

제1회 청소년 사목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지난 2일(일) 오후 1시부터 사우스 라이딩 골프 클럽(South Riding Golf Club)에서 개최되었다. 본당 신자 9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원경(대진 안드레아) 보좌 신부는 개회사에서 “청소년 사목 기금 마련을 위해 처음 실시되는 골프 대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회는 A조, B조, 여성 그리고 이번 대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 시니어 그룹으로 나누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청소년 사도회의 ‘로고스’와 ‘라파엘’ 청년 단체가 그늘막에서 판매한 파전과 막걸리를 즐기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성당 친교실로 옮겨 주일학교(PTO)에서 준비한 푸짐한 저녁 식사와 시상식, 경품 행사를 함께 하며 유쾌한 하루를 마감했다. 이날 50" TV 경품 추첨에는 본당의 예비 신자인 조슈아 조 형제가 당첨되어 교우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이날 모인 기금은 참가비, 후원비 그리고 경품 티켓 판매를 통해 7천 5백 달러가 넘었다.

대회를 주관한 청소년 사도회 회장(김돈현 미카엘)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님과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성원경(대진 안드레아) 보좌 신부님, 대회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 수상자 명단

- A조 : 김규석(우승), 정금식(준우승), 박종찬(장려상)
- B조 : 서학철(우승), 지선용(준우승), 김문겸(장려상)
- 시니어 : 강승평(우승), 이병준(준우승), 박수웅(장려상)
- 여성 : 김요안나(우승), 정스텔라(준우승), 이선희(장려상)
- 근접상 : 정우각, 송승영
- 장타상 : 고동균, 김남식



▲B조 우승자

◀A조 우승자

### 후원자 명단

강세원(바오로), 광노덕(도미니코), 권미경(모니카), 권태완(빈센트), 김남식(다윗), 김돈성(베드로), 김돈현(미카엘), 김동표(로무알드), 김윤희(안젤라), 김은경(수산나), 김정수(이냐시오), 글로벌 어린이 재단, 롯데화장품, 만나식품, 박원균, 박이순(아가다), 베드로회, 서명석(스테파노), 서영민(리파), 서종원(베드로), 서진호, 성모회, 성물부, 송수형, 심정녀(안젤라), 안나회, 요한회, 유스티노한, 유홍열(베드로), 윤상, 윤재원, 유제운(요셉), 이소라, 이영찬, 이용현(요셉), 이일우, 이재원, 인기만(요셉), 임흥진(요셉), 정루시아, 전양수(요셉), 정수경(안나), 최종환(시몬), 최평란, 팔도골프, 하상한국학교, 하상회, 한강, 허진, 황복성(루카), 황율리아, 황원균, K of C ..... 총 53명 / 합계 \$6,630



폐회식

### ▶ 9월 울뜨레야

9월 울뜨레야 회합이 지난 9월 30일(금)부터 10월 2일(일)까지 2박 3일간 블루리버 팜에서 열렸다.

첫날 저녁, ‘회합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목상을 서로 나눴다. 둘째 날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게임과 탁구, 족구, 피구 등의 운동이 끝난 후 9월 울뜨레야 회합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준비해 간 재료들로 바비큐 및 찜개 등을 만들어 먹으며 친교를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꾸르실리스따로서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



### ▶ 10월 구역 임원 교육 실시

10월 구역 임원 교육이 지난 2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30여 명의 구역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 담당 부회장 강세원(바오로)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본당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불우이웃 돕기, 5k 걷기/뛰기 대회, 음악의 밤, 대진교 및 성경 퀴즈 대회) 평가가 있었으며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산후 도우미 구합니다. 문의 : 전레지나 (312) 451-6301

# 따뜻한 사목, 포근한 자비의 집 을 희망하는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

**‘성숙한 신앙인, 이웃과 함께, 하나된 공동체’ 에 대하여..**

오랜 기다림과 걱정을 안고 이곳 성 정바로 성당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본당 30주년 행사로 ‘5K 걷기 뛰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체험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교우분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땀 흘리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 출발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30주년 행사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본당에 재능과 능력을 지닌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이웃을 위해 봉헌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이웃과 함께, 하나된 공동체...** 저는 이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할 과제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30주년 행사를 준비했고 또 잘 치뤘습니다. 음악의 밤, 성경 필사, 성경 퀴즈 대회 등 뜻깊은 일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생활에서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죠.

행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는 사목 방향이나 사목 목표는 그 한 해만 하라고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함이지요. 30주년을 맞아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말씀을 생활화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회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곳, 상처입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



### 주님의 부르심

저는 9남매 중 여섯째인데, 5남 4녀 중 누님 한 분과 막내 여동생이 수도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저와 남동생이 사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성소는 아주 자연스럽게 짝튼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거의 성당과 사제관 주변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평생 농사일만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저희에게 말로 신앙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미사와 주일학교는 빠지면 안된다고 하셔서 학교 개근상은 없는데 주일학교 개근상은 있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마음 속으로는 9남매를 다 하느님께 봉헌하고 사셨다고요.

내년이면 사제로 산 지 25주년을 맞습니다. 첫 교포 사목지인 성 정바로 성당에서의 사목이 저에게는 많은 의미를 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마태 4,19)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 사제 서품 성구로 뽑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저를 이 곳으로 보내셨을까...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이 내리기를 ...**

전 우리 성당이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자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의 특별 희년을 발표하실 때 “교회는 모든 이를 환대하며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자비의 증인이 되고 하느님의 자비로 모든 이를 위로하도록” 부르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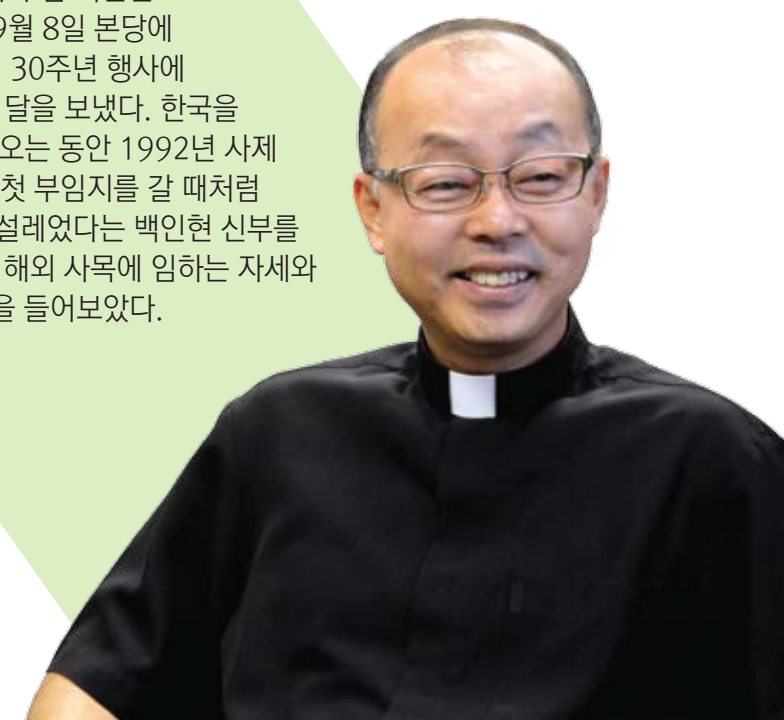
**“ 자비의 희년에 우리 공동체가 겪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느님의 자비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

2015년 12월 8일(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시작한 자비의 특별 희년이 다음 달인, 11월 20일(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마칩니다. 저는 이 희년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교우분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치유해 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30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특히 이민 사회 안에서 교회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곳, 상처입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비의 희년에 우리 공동체가 겪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느님의 자비로 치유되었으면 합니다. 분열과 상처가 얼룩진 곳에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이 듬뿍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 곳에 있는 동안 상처난 곳을 봉합해 주고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사목자가 되겠습니다. **하상 주보**

성 정 바로 성당 제 8대 주임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 지난 9월 8일 본당에 부임한 후 본당 설정 30주년 행사에 참여하며 바쁜 한 달을 보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는 동안 1992년 사제 서품을 받고 첫 부임지를 갈 때처럼 긴장되고 설레었다는 백인현 신부를 만나 첫 해외 사목에 임하는 자세와 바람을 들어보았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생활화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Religious Studies

**OCTOBER : *Month of the Holy Rosary***

The month of October is dedicated to the Holy Rosary. According to an account by fifteenth-century Dominican, Alan de la Roche, Mary appeared to St. Dominic in 1206 after he had been praying and doing severe penances because of his lack of success in combating the Albigenian heresy. Mary praised

him for his valiant fight against the heretics and then gave him the Rosary as a mighty weapon, explained its uses and efficacy, and told him to preach it to others.

Since the prayers of the Rosary come from such excellent sources — from Our Lord Himself, from inspired Scripture, and from the Church —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Rosary is so dear to our Blessed Mother and so powerful with heaven.

If we consider the power of the Rosary as seen in its effects, we find a great abundance of proofs of its wonderful value. Many are the favors granted to private individuals through its devout recitation: there are few devoted users of the Rosary who cannot testify to experiencing its power in their own lives.

If we turn to history, we see many great triumphs of the Rosary. Early tradition attributes the defeat of the Albigenians at the Battle of Muret in 1213 to the Rosary. But even those who do not accept this tradition will admit that *St. Pius V* attributed the great defeat of the Turkish fleet on the first Sunday of October, 1571, to the fact that at the same time the Rosary confraternities at Rome and elsewhere were holding their processions. Accordingly, he ordered a commemoration of the Rosary to be made on that day. Two years later, *Gregory XIII* allowed the celebration of a feast of the Rosary in churches having an altar dedicated to the Rosary. In 1671, *Clement X* extended the feast to all Spain. A second great victory over the Turks, who once, like the Russians, threatened the ruin of Christian civilization, occurred on August 5, 1716, when *Prince Eugene* defeated them at Peterwardein in Hungary. There upon *Clement XI* extended the feast of the Rosary to the whole Church.

**TO OUR LADY OF THE ROSARY**

*O Virgin Mary, grant that the recitation of thy Rosary may be for me each day, in the midst of my manifold duties, a bond of unity in my actions, a tribute of filial piety, a sweet refreshment, an encouragement to walk joyfully along the path of duty.*

*Grant, above all, O Virgin Mary, that the study of thy fifteen mysteries may form in my soul, little by little, a luminous atmosphere, pure, strengthening, and fragrant, which may penetrate my understanding, my will, my heart, my memory, my imagination, my whole being.*

*So shall I acquire the habit of praying while I work, without the aid of formal prayers, by interior acts of admiration and of supplication, or by aspirations of love.*

*I ask this of thee, O Queen of the Holy Rosary, through Saint Dominic, thy son of predilection, the renowned preacher of thy mysteries, and the faithful imitator of thy virtues.*

Amen.

CCD-CYO News

**2016 SPC FIRE DRILL**

Students at St. Paul Chung took part in a fire drill on Sunday morning with school teachers and Fr. Seong.

It was the third year that the school was practicing and the goal was to make fire drills a useful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and staff.

**ANNOUNCEMENTS**

- 1 Deadline for Confirmation Information Oct 12<sup>th</sup> (Wed.)**
  - Baptismal Certificates & Sponsors
- 2 Rally 2016 : Annual Diocesan outreach event for high school students**
  - When : Oct 23<sup>rd</sup>(Sun) 12pm - 8pm
  - Where: Bishop O'Connell HS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 3 FCC Make-Up Class**
  - When : Oct 23<sup>rd</sup> (during regular class hour)
- 4 Looking for basketball coaches**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1 단체장 회의**

• 일시 : 10월 9일(일) 오전 11:30 (B-1,2)

**2 레지오 마리아 야외행사**

• 일시 : 10월 9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나눔터  
• 행동/협조 단원 및 가족들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 10월 9일(일) 오후 1:30 (교무실)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1시 (B-3,4)

**5 K of C (청소년 기금 마련 단체 족구대회)**

•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30 체육관  
• 족구팀 : 로고스, 베드로회, 바오로회, K of C  
• 청소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 대항 족구 대회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의료 봉사자 모집(주일 8시 미사)**

• 본당 8시 미사에서 위급한 환자 발생시 도와주실 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찾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재필 제프리 (703) 589-6580

**7 꾸르실로 점심 판매 (성모회 협조)**

• 일시 : 10월 16일(일)  
• 장소 : 친교실  
• 메뉴 : 순두부(\$6) 포장 가능  
• 문의 : 광노덕 (703)608-9664

**8 성당 묘지 구입 및 정리 안내(연령회)**

• 일시 : 10월 22일(토) 오전 10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 묘지 사무실에서 묘지 구입과 판매에 대해 안내합니다.  
• 문의 : 홍익훈(요셉) (703)966-8206

**9 오르간 반주 봉사자 모집**

•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분 미사에 오르간 반주 봉사하실 분을 구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상태 요한 (703)302-0026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9일(일)	연중 제28주일	단체장 회의(11:30, B-1,2), 주일학교 교사회의 (13:30, 교무실), 레지오 야외행사(11:30, 나눔터)
10일(월)	연중 제28주간 월요일	아침미사(6:00, 성당), 사무실 휴무(Columbus Day)
11일(화)	연중 제28주간 화요일	하상 성인학교 (9:30,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성령기도회(20:00, 도서실)
12일(수)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재속프란치스코(20:00)
13일(목)	연중 제28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14일(금)	연중 제28주간 금요일	하상성인학교(9:30, 하상관), 저녁미사(19:30), CLC(20:00)
15일(토)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혼배성사 (15:00, 성당)
16일(일)	연중 제29주일	하상회(오전11:30, B-3,4), 안나회(오전11:30, A-1,2,3,4), 주일학교 임원회의(13:00) 성소자 모임(12:4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13:00, B-3,4)

**10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30 (B-3,4)

**11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30 (A-1,2,3,4)

**12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4,5)

**13 Quo Vadis 성소자 모임**

•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12:40 (B-3,4)

**14 학생 견진 성사반 대부모 및 세례성사증 제출**

• 마감 : 10월 12일(수) 오후 8시까지

**15 주일학교 농구 코치 봉사자 구함**

•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농구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나눠주실 교우분은 주일학교로 연락주십시오.  
• 연락처 : 윤정 보일 (703) 371-3589 또는 spc15.re.admyc@gmail.com

**16 M.E. (본당) 친선 볼링대회**

• 일시 : 10월 30일(일) 오후 2시-오후 4시 (AMF Centreville Ln)  
• 본당에서 활동 중인 M.E 팀, M.E. 주말부부를 다녀오신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 회비: 1인당 \$25/ 팀: \$50  
• 문의: 김이조 베로니카 (703)864-1236

**17 성물부 세일 안내**

• 목주기도 성물을 맞이하여 성상, 고상, 목주를 20% 세일합니다.  
•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제출하신  
성경 필사 노트를  
8시, 10시 11:40 미사 후  
회의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주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0월 13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톤즈에서 온 편지** : 200일간의 아프리카 남수단 봉사 이야기 6, 7회
- **전광진 신부 특강 1** : 한국 천주교회사.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 신앙선조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일반 지향**  
언론인  
언론인들이 강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언제나 진실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전교주일  
전교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의 기쁨과 이를 선포할 의무를 새롭게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10월 2일 (연중 제27주일)

주일헌금 ..... \$ 7,379.15  
교무금 ..... \$ 11,965.00  
교무금(신용카드) ..... \$ 1,600.00  
특별헌금 ..... \$ 400.00  
2차 헌금 ..... \$ 0.00  
**합계 ..... \$ 21,344.15**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 (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백참(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안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술(루시아),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간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김충원씨 자 : **김석주 (프란치스코)**  
◆ 이상민씨 녀 : **이소라 (수산나)**  
• 일시 : 2016년 10월 15일 (토) 오후 3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주택용자, 채용자</b>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스카이 학원</b>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신디 리 부동산</b>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F teck connection, LLC</b>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마태오 흥 종합보험</b> 오바마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b>Golf Lesson</b>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찬들리 HYUNDAI</b>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b>서양화</b> 아크릴, 수채화, 유화 김이레나(교사자격증) 703-927-9229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b>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b>5분 도정</b>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b>임경옥 부동산</b>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b>Sola Salon</b> 조지 메이슨 앞 유니버시티몰 내 Studio #5 남자 헤어 컷 : \$10 703-868-9427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